여성출가학교 회향…“출가 생각하는 계기”

봉녕사 2월 17일, 졸업식 봉행
참가자 11명 전원에 졸업증서 수여
출가 발심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
진상 스님 “온 세상 희망 빛 되길”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봉녕사 여성출가학교에 동참한 11명이 한 달간의 일정을 회향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리이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과 닮아가길 서원하며 산문에 든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참가자 11명이 한 달간의 일정을 회향했다. 한국 전통 승가 생활을 경험하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난 참가자들은 출가학교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굳건히 정진하고, 자리이타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수원 봉녕사 여성출가학교(학교장 진상 스님, 봉녕사 주지)가 2월 1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1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졸업식’을 진행했다. 출신도, 나이도 다르지만 저마다의 고민과 불안을 안고 출가학교를 찾은 11명의 참가자.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한 달간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 이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졸업하게 됐다.

참가자들은 그간 매일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새벽예불·사시불공·저녁예불에 참석했으며 발우공양, 울력, 기초교리 수업 등 일과도 게으름 없이 수행해냈다.

졸업식에서 여성출가학교장이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익숙하지 않은 생활환경에서 빡빡한 일정을 원만히 소화해준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다. 스님은 “지난날을 참회하고 기도와 수행, 자비로 지혜의 눈을 갖는 성불은 물고기가 용이 되는 ‘어변성룡’과 같다”며 “출가학교에서 한 달간의 수행이 ‘어변성룡’으로 가는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날짜가 지날수록 발효하는 음식이 있다”며 “출가학교를 회향하는 여러분은 항상 자기 내면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도 치사를 통해 “회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간 쌓은 복덕자량을 우리 사회 모든 이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며 “이 시간부터는 세상 모든 생명에 힐링과 행복을 전하는 ‘행복힐링전도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푸는 삶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4주간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한 참가자들의 표정은 1월 21일 입교 당시보다 한결 밝았다. 특히 이번 여성출가학교는 아녕(58) 참가자에게 깊은 울림이 됐다.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아녕 참가자는 “늘 부처님 제자가 돼 공부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지만 마음먹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를 경험하면서 출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60을 앞둔 나이에 ‘은퇴출가’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꼭 출가학교를 찾아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각지고 모났던 나도 한 달 사이 많이 둥글어졌다”고 웃음 지었다.

무진향(41) 참가자도 여성출가학교를 통해 출가에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했다. 무진향 참가자는 “흔들릴 때마다 스님들이 곁에서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스님들을 보며 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지금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출가학교를 통해 맺은 인연 덕분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로 여행 떠나자”

‘2024 여행가는 달’ 연계
1박 2일, 내 · 외국인 3만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눈길은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여행가는 달’을 연계한 템플스테이 할인 이벤트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원에, 당일형 템플스테이 체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1만5000원에 참가할 수 있다. 전국 약 103개 사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인 1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예약은 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벚꽃 피는 봄, 천년고찰서 ‘짝꿍’ 만나볼까?

‘나는 절로, 전등사’ 4월 6~7일
30대 미혼 남녀면 누구나 신청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4월 6~7일 강화 전등사에서 1박 2일간 특별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전등사’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1, 2기에 이은 것이다. 지난해 진행 당시 전화 문의 2000여 건 이상, 이메일 접수 1000여 건 이상이 쏟아지며 신청 시작 반나절 만에 마감된 바 있다. 복지재단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만족스러운 후기에 힘입어 올해는 횟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나는 절로, 전등사’는 강화도에 위치한 천년고찰 전등사에서 30대 미혼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참가자들은 1박 2일동안 불교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는 물론 소원지 작성, 연애 특강, 인구소멸 현상에 대응하는 저출산 해결 방안 공유,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 남녀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별도의 시간도 마련된다.

종교에 상관없이 30대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에서 접수. 02-723-5117

임은호 기자

여성불자회, 클래식 선율로 새해 시작

2월 21일, 신년하례 및 음악회 계최
대의원총회서 올 한해 사업 승인도
‘천년을 세우다’에 1000만원 후원


김의정 회장과 범해 스님, 선업 스님은 250여 여성불자들에게 새해 선물을 나누며 신년인사를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신년하례와 클래식 음악회로 갑진년 새해 활발한 시작을 알렸다.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2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3차 대의원총회 및 신년하례음악회’를 개최했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의원총회와 신년하례법회, 음악회로 진행됐다.

신년하례법회에서 김의정 회장은 “환경, 가정, 평등, 전법, 수행, 문화, 봉사라는 7개의 키메시지를 기치로 첫 걸음을 내딛은 전국여성불자회는 갑진년 새해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역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한국불교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면서 “종단의 대표성을 가진 여성불자조직으로 조직체계를 완성하고 우리 사회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남겨진 차세대 여성인재 발굴 지원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온 역사적 여성불자들을 찾아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김의정 회장은 250여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새해 단주와 새뱃돈, 부럼세트 등을 선물하며 신년인사를 나눴다.

참석대중들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나보다 약한 이웃을 돕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2부는 ‘내 안에 음악풍경’을 주제로 한 음악회로 진행됐다. 이날 여성불자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의정 회장이 “서울에서 천리 떨어진 곳에 천년을 누워계시는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정성을 모으겠다”고 하자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여성불자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 공무원 불자들, 활동재개 다짐

2월 17일, 봉은사서 신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 이하 공불련)가 2월 17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2024 갑진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라와 국민의 편익을 살피는 공무원이 될 것을 발원했다.〈사진〉

정승윤 공불련회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활발한 활동재개를 다짐하고 “공불련이 공무원들의 마음의 위안처가 될 수 있길 서원한다”면서 “공불련이 더욱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불련 회원들은 발원문에서 “청정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 출발일 5월 26일 / 6월 12일
■ 동참금 145만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3박5일
■ 출발일 6월 11일 ■ 동참금 180만원

보현도량
아미산+구채구+낙산대불 5박6일
■ 출발일 6월 16일 ■ 동참금 175만원

구법승들의 여정을 따라, 실크로드 6박7일
■ 출발일 5월 18일 ■ 동참금 229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4박5일
■ 출발일 5월 26일 / 6월 10일
■ 동참금 145만원

■ 지상 무릉도원 세계자연유산 장가계 5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일본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상담문의 환영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